

터키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6. 3.

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|
| I. 일반개황 | 1 |
| II. 경제동향 | 2 |
| III. 정치·사회동향 | 6 |
| IV. 국제신인도 | 7 |
| V. 종합의견 | 9 |

I. 일반개황

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면적 | 784천 Km ² | G D P | 7,300 억 달러 (2015년) |
| 인구 | 77.70 백만 명 (2015년) | 1 인 당 GDP | 9,396 달러 (2015년) |
| 정치체제 | 내각책임제(대통령제 가미) | 통화단위 | 리라(Turkish Lira) |
| 대외정책 | 친서방 및 친아랍의 균형외교 | 환율(달러당) | 2.72 (2015년 평균) |

- 터키는 한반도의 3.5배에 달하는 국토면적과 유럽에서 두 번째로 많은 7,77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의 접경지역인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음.
- 정의개발당(AKP)이 2002년 집권 이후 현재까지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에르도안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 추진으로 야권의 반대 및 반정부시위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함. 또한, 쿠르드족 분리주의 반군(PKK)과의 무력충돌, 시리아 내전에 따른 난민 유입 및 테러발생 등으로 지정학적 불안이 심화된 상태임.
- 이슬람 국가 중 유일한 NATO 회원국으로 여타 이슬람 국가와는 달리 정교분리의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음. 2004년 시작된 EU 가입협상이 키프로스 독립국 인정 문제 등으로 중단된 바 있으나 2015년 재개되는 등 EU와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음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| 구 분 | 2012 | 2013 | 2014 | 2015 ^e | 2016 ^f |
|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경제성장률 | 2.1 | 4.0 | 3.0 | 3.1 | 2.9 |
| 소비자물가상승률 | 8.9 | 7.5 | 8.9 | 7.4 | 7.0 |
| 재정수지 / GDP | -1.7 | -1.3 | -1.0 | -0.8 | -0.8 |

자료: IMF, EIU.

□ 수입물가 하락에 따른 내수 증가로 경제성장률 소폭 개선

- 2002년 정부의 긴축정책 시행 및 유로존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2.1%로 크게 둔화된 이후 2013~14년 평균 3.5%를 기록함.
- 2015년에는 테러 발생 등의 지정학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수입물가 하락에 따른 내수증가로 3.1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, 2016년에는 러시아의 경제제재에 따른 농산품 및 관광업 부문 수출 감소의 영향을 받아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.

□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

- 터키는 만성적으로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, 중앙은행은 중기 목표치를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음(2012~17년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치는 5%).
- 2015년에는 리라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(8.9%) 대비 둔화되어 7.4%를 기록하였으며, 2016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.

□ 재정적자 지속되나 GDP 대비 1% 내외 수준에서 관리

- 2009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GDP 대비 재정적자가 6%에 달하였으나, EU 가입을 위해 재정수지 관리에 역점을 두어 2012년 이후 1% 내외의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음.
- 지속적인 긴축 재정정책 시행으로 2015년에는 GDP 대비 0.8%의 재정적자를 기록하였으며, 2016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에너지에 대한 높은 수입 의존도로 유가 변동에 취약

- 2011~15년 에너지 수입량이 사용량의 74%에 달하는 등 에너지 부문의 해외의존도가 높아 유가 변동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음.
 -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, 전체 수입량 중 가장 큰 비중인 57%(13년 기준)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음.
- 정부는 에너지 수입 루트 다변화, 신재생 에너지 생산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고 해외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.

□ 해외자본에 대한 높은 의존도

- 국내 저축률이 낮아(15년 기준 16%)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변동성이 큰 해외자본으로 보전하고 있음. 최근 터키의 지정학적 긴장, 지속적인 리라화 약세 등에 따른 투자자들의 우려로 해외자본 유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, 이러한 외부 충격시 유동성 위기에 노출될 수 있음.
 - 미달러 대비 리라화 환율은 2015년 중 정정 불안, 테러 발생 등에 따른 안보 위협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했으며, 2015년 말에는 전년 말 대비 22.7% 상승한 2.7 리라를 기록함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지정학적 요충지와 풍부한 노동력 보유로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반 형성

-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, 이슬람 문화권 국가로 중동 국가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중동, 중앙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음.
- 유럽 국가 중 2위 규모에 해당하는 많은 인구(2015년 기준 7,770만 명)를 보유하고 있으며,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67.5%에 달하여 노동력이 풍부함.

□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수송 허브 역할 기대

- 터키는 유럽과 중앙아시아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자국 영토를 지나는 가스관 구축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에너지 수송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.
 - 현재 운영 중인 주요 수송관으로는 Baku-Tbilisi-Ceyhan(BTC) 송유관과 Baku-Tbilisi-Erzurum(BTE) 천연가스관 등이 있으며,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카스피 해 연안, 중동 등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Southern Gas Corridor(SGC) 프로젝트와 아제르바이잔에서 유럽까지 연결되는 Trans Anatolian Pipeline(TANAP) 프로젝트가 있음.
- 또한 2015년 러시아 남부에서 흑해 해저를 통해 터키 서부지역, 동남 유럽 국가로 연결되는 러시아의 가스관 사업인 Turkey Stream에 참여하여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 및 할인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되었으나, 현재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로 협상이 중단된 상태임.

다. 정책성과

□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 경제구조개혁 추진 지속

- 정부는 민영화청(Turkish Privatization Administration)을 설립하여 정부 재원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, 1985~2003년 중 민영화를 통해 80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함.

- 2013년 18개 국영 배전회사를 127억 달러에 매각하여 배전 민영화를 완료하였으며, 도로, 교량, 부동산 및 항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어 투자 유치 및 경쟁력 강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됨.

3. 대외거래

<표 2>

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| 구 분 | 2012 | 2013 | 2014 | 2015 ^e | 2016 ^f |
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경 상 수 지 | -48,535 | -64,658 | -46,527 | -32,692 | -34,136 |
| 경상수지 / GDP | -6.2 | -7.9 | -5.8 | -4.5 | -4.7 |
| 상 품 수 지 | -65,367 | -79,907 | -63,579 | -50,680 | -48,312 |
| 수 출 | 161,948 | 161,789 | 168,931 | 153,575 | 158,525 |
| 수 입 | 227,315 | 242,696 | 232,510 | 204,255 | 206,838 |
| 외 환 보 유 액 | 99,943 | 110,927 | 106,906 | 94,408 | ... |
| 총 외 채 잔 액 | 336,961 | 389,386 | 408,203 | 408,659 | 408,767 |
| 총외채잔액 / GDP | 42.8 | 47.3 | 51.1 | 56.0 | 57.4 |
| D. S. R. | 25.8 | 27.3 | 23.9 | 28.1 | 30.9 |

자료: IMF, OECD 및 EIU.

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이나 국제유가 하락으로 소폭 개선

- 터키는 낮은 국내저축률 및 에너지부문의 높은 해외 의존도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기조를 형성하고 있음.
- 2015년에는 유가 하락에 따른 상품수입액 감소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전년(5.8%) 대비 소폭 개선된 4.5%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
외환보유액은 감소 추세

- 2015년 외환보유액은 944억 달러로 2013년 이후 감소 추세이나 월평균 수입액의 4.7개월 수준으로 안정적인 편임.

□ 2011년 이후 외채상환능력 지표 악화

- 2011년 이후 외채상환능력 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15년 GDP 대비 총 외채잔액은 56.0%, D.S.R은 28.1%를 기록함. 2016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금유출을 유발하는 외부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.

Ⅲ. 정치·사회동향

1. 정치안정

□ 2015년 조기 총선에서 정의개발당(AKP)이 재집권함에 따라 정치적 불안 해소

- 정의개발당(AKP)은 2002년 집권 이후 13년 간 정권을 유지해 왔으나 2015년 총선에서 단독 및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하여 정치적 불안이 고조됨.
- 2015년 11월 조기총선에서 AKP가 과반의석을 확보하여 재집권함에 따라 정치적 불안이 해소되었으나, 에르도안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 추진으로 야권의 반대 및 반정부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.
- AKP의 승리는 6월 총선 이후 지속된 테러 발생에 따른 국민의 불안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.

2. 사회안정 및 소요/사태

□ PKK와의 무력충돌 및 시리아 내전에 따른 테러 발생 등으로 사회불안 심화

- 터키 인구의 18%를 차지하는 쿠르드족은 주 거주지인 동남부 지역에서 쿠르드족 분리주의 반군(PKK)을 중심으로 분리 운동을 지속하였으며 이로 인해 정부군과의 무력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함.
- 미국이 IS 세력 격퇴를 위해 PKK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YPG(시리아 쿠르드족 민병대)를 지원하자 IS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터키 내 쿠르드족 대상 테러를 감행하고 있음. 2016년 1월에는 이스탄불 관광지인 술탄 아흐멧 광장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는 등 테러 대상이 민간인 및 관광객으로 확대되고 있어 사회적 불안이 고조된 상태임.

3. 국제관계

□ EU 가입 협상 재개

- 터키 정부는 2005년 10월 EU 가입협상이 시작된 이후 가입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형제도 및 국가안보법 폐지 등의 개혁조치를 단행하였으나, 키프로스 지위 인정 및 영토 분쟁 등의 문제로 가입이 지연되어 옴.
- 2004년 EU 정상회의에서 남부 키프로스를 정식 국가로 승인하였으나, 터키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.
- 그러나 2015년 12월, 유럽의 난민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에 따라 EU는 터키의 난민수용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EU 가입을 위한 협상을 공식 재개함.

□ 러시아 전투기 격추로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

- 러시아와는 친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해 왔으나, 2015년 11월 터키가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함에 따라 양국 간 관계가 악화됨.
- 러시아는 양국 무비자 협정 잠정 중단, 터키인 고용 제한 및 대 터키 수입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음.

IV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□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실적 미미

- 2015년 9월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인수승인 잔액은 단기 57억 달러, 중장기 282억 달러로 총 339억 달러이며, 이 중 연체금액은 1,310만 달러로 전체의 0.04%에 불과함.
- OECD CRAM(Country Risk Assessment Model)의 ECA 거래실적에 대한 모델등급이 0등급(0.3%)으로 최상위 수준임.

2. 국제시장평가

-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

<표 3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| 평가기관 | 최근 평가 등급 | 종전 평가 등급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OECD | 4등급 (2016. 1.) | 4등급 (2015. 1.) |
| Moody's | Baa3 (2015. 12.) | Baa3 (2014. 4.) |
| Fitch | BBB- (2015. 9.) | BBB- (2015. 3.) |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- 국교수립: 1957년 3월 8일(북한과는 2001년 6월 27일)
- 주요협정: 사증면제협정(1972년),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협정(1977년), 이중과세방지협정(1986년), 투자보장협정(1994년), 섬유협정(1997년), 원자력 평화적 이용협정(1999년), 자유무역지대 창설 기본협정, 관광협정, 상품무역협정(2013년), 사회보장협정(2015년)
- 해외직접투자 현황: 2015년 12월말 기준 137건, 13.9억 달러
- 교역규모

<표 4> 한·터키 교역 규모

단위: 백만 달러

| 구 분 | 2013 | 2014 | 2015 | 주요품목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수 출 | 5,658 | 6,665 | 6,249 | 합성수지,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, 철강관 |
| 수 입 | 692 | 655 | 790 | 농약 및 의약품, 석유제품, 자동차부품 |
| 합 계 | 6,350 | 7,320 | 7,039 | - |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V. 종합 의견

- 2015년에는 테러 발생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,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도 불구하고 수입물가 하락에 따른 내수 확대로 3%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함. 또한 낮은 국제유가에 힘입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축소되었으나, GDP 대비 총외채 비중이 상승하는 등 외채 상환능력 지표가 악화됨.
- 2015년 6월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당인 정의개발당(AKP)의 과반의석 확보 실패로 정정 불안을 겪었으나, 11월 조기 총선에서 재집권하며 정치적 불안이 해소됨. 사회적으로는 시리아 내전에 따른 난민 유입 및 테러 발생, 쿠르드족 분리주의 반군(PKK)과의 무력충돌 등으로 치안이 악화되고 불안이 매우 심화된 상태임.
- 국제신용평가기관은 2013년 터키의 재정건전성 강화 등을 이유로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. 우리나라와는 한-터키 상품부문 FTA가 발효되어 교역 및 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나, 현재 양국 간 경제교류는 정치·외교적 관계에 비해 미흡한 실정임.

조사역 조희연 (☎02-6255-5708)
E-mail: chy@koreaexim.go.kr